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8월 14일 월요일 (음 6월 23일) 제186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전주형 성장사다리 강소기업육성 협약 체결
전주시는 지난 11일 한국탄소융합기술원 탄소기술교육센터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이기동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장, 정동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쉐피치케이비 등 성장사다리사업 선정기업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형 성장사다리 강소기업육성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관련기사 6면>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 첫발 뚫었다

▶ 기재부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서 예비조사 대상 선정

전북도-도내 정치권, 정부 부처 방문 설득 노력 '결실'
내년부터 4년간 868억원 투입... 확장되면 내부개발 '박차'

전북도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11일, 2017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를 열고 가력선착장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총괄하여 약 6개월간 수행하며 경제성 분석(B/C),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실시하고 사업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시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전북도는 지난 2~4월 타당성 보완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기관과 수차례 협

의,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김중회(국민의당, 김제-부안), 김관영(국민의당, 군산) 국회의원의 지원을 통해 기획재정부, KDI에 적극적인 타당성 논리를 설명하여 결실을 맺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
새만금 1호 방조제 전면 가력선착장은 사업기간 2018~2021년(4년간)이며, 총사업비는 868억원(국비)이다.
사업내용은 방파제 1,674m(764m), 물양장 1,290m(620m), 부잔교 5기(3기), 여객부두 50m, 부지조성 7만5000㎡이다.
가력선착장이 확장되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속도감 있는 개발과 내부

용지 조성 등 새만금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측 조업어선 642척(등록435, 무등록207)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한 정박이 가능해짐에 따라 내부 개발이 한층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대체어항 개발은 지난 1991년 10월 공유수면매립면허시 매립지역 어업인들의 조업실정을 감안하여 폐쇄되는 내측 11개어항을 대체, 방조제 외측에 4개항을 신설하기로 협의된 조건이다.
또 대체어항 중 내측어선 수용이 가능한 어항의 수용능력을 검토한 결과, 2015년 기준 466척, 목표연도 2025년 기준 총 383척이 부족하여 추가시설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4개항은 가력선착장, 신시항, 비응항·대항항이다.
특히 가력선착장은 접근성과 이용편의성이 좋아 어업인들이 선호하고 있으나 수용능력은 150척인 반면, 수

용대상 어선은 329척에 달해 179척이 부족하고 다른 대체어항에 비해 수용률이 현저하게 낮아(45.6%) 확장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당초 공사용 선착장으로 개발되어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의 정온도(0.4m 이내)를 상회하는 0.5~0.7m의 너울성 파도가 항내로 진입하여 어선 파손이 잦아 정온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도 김대군 해양수산과장은 "가력선착장 확장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첫 관문인 예산전 통과한 만큼,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을 문턱이 닳도록 방문하여 예비타당성조사에 적극 대응, 심사를 통과하여 내측어선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한 수용공간 확보를 통해 새만금 내부 개발의 효과적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주택마련' 디딤돌대출 1년 이상 실거주자만 허용

28일부터... 국토부, '갭투자' 등 오용되는 것 막기 위해

이달 말부터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대출'이 1년 이상 실거주자에게만 허용된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디딤돌 대출이 '갭투자' 등으로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거주 의무 제도를 오는 28일 도입할 예정이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빌려주는 금융상품으로, 대출을 받고 나서 전세로 돌리고는 시세차익을 챙기고 파는 갭투자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디딤돌 대출 이용자는 대출을 받은 지 한 달 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은 직접 거주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배상금을 내야 하거나 최악의 경우 대출을 회수당할 수 있다.
대출자는 은행에서 대출 약정을 맺을 때 이와 같은 약속을 하고 실거주 확인 절차를 동의해야 하고, 대출자는 전입신고를 하면 한 달 내에 집의 전입세대열람표를 은행에 내야 한다. /안재용 기자

대출 이후 한 달 안에 전입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한 달의 시간을 다시 주면서 실거주하지 않는 데 대한 대가로 물리는 '지연배상금'과 대출 회수 등을 경고한다.
추가로 준 한 달이 지나도 전입을 하지 않으면 지연배상금이 부과되며, 지연배상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대출 이후 1년이 되도록 전입을 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대출이 회수된다.
단, 대출 후 기존 입차인의 퇴거가 지연되거나 집주리를 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전입이 2개월 연장된다.
국토부는 전입 이후 1년 거주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는지도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의심 가구를 중심으로 표본을 뽑아 방문 조사 등을 벌이기로 했다.
다만 국토부는 질병치료를 직장 이전, 대출자의 사망으로 가족이 채무를 인수한 경우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사유가 매개 계약 이후 발생하면 실거주 적용 예외 사유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안재용 기자

농기술실용화재단, 도내 기관 연계 시너지 창출 주력

익산시로 이전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전북지역의 농업·과학 기관과 연계한 시너지 창출에 주력할 방침이다. /뉴스

성한다는 구상을 마쳤다.
아울러 '제3 금융도시로의 전북 육성'을 기치로 내건 새 정부 정책에 맞춰 국민연금공단 등 연기금 금융기관들과 협력해 기술평가에 기반한 유망 농산업체를 발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재단은 또 익산지역으로의 이전에 발맞춰 사회적 책임경영 실현을 위한 사회기여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한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지난 달 18일 기획운영분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익산 이전에 나서고 있다.
재단 종사사업분부는 지난해 6월 이전에 현장적응에 나서고 있으며 분석검정분부는 분석시험센터·농기계검정센터 등 특수시설을 신속해 오는 2018년 5월 이전한다. /뉴스

매일 INDEX			
2면	- 16일부터 긴급재난문자 직접 발송	3면	- 고항기부제 도입 찬성 78.3%
4면	- 전주 명품 시내버스, 명물 되다	12면	- 현행 도서정가제 3년간 유지

www.firefly.or.kr

제21회 자연의 빛 생명의 빛 미래의 빛

무주 반딧불축제

The 21st Muju Firefly Festival

2017.8.26(토) ~ 9.3(일)
무주군일원 | 지남공원, 등나무운동장, 남대천, 반딧불전통공예문화촌 등

2017 무주 남대천 물축제
8.26~27, 9.2~3 (4일간)

· 주최: 무주군 · 주관: (사)무주반딧불축제추진위원회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환경부 · 교육부 · 전라북도 · 익산광역시 · 전북특별자치도 · 무주, 전북 무주군 무주읍 회북로 15 · 문의: (063)320-5004-05